

동중부 KCLC Newsletter



우화의 강 - 마종기

사람이 사람을 만나 서로 좋아하면
두 사람 사이에 물길이 튼다.
한쪽이 슬퍼지면
친구도 가슴이 메이고
기빠서 출렁이면 그 물살은
밝게 빛나서 친구의 웃음소리가
강물의 끝에서도 들린다

처음 열린 물길은 짧고 어색해서
서로 물을 보내고 자주 섞여야겠지만
한세상 유장한 정성의 물길이
흔할 수야 없겠지
넘치지도 마르지도 않는
수려한 강물이 흔할 수야 없겠지

긴 말 전하지 않아도
미리 물살로 알아듣고
몇 해쯤 만나지 못해도
밤잠이 어렵지 않은 강
아무려면 큰 강이 아무 의미도 없이
흐르고 있으랴
세상에서 사람을 만나
오래 좋아하는 것이 죽고 사는
일처럼 쉽고 가벼울 수 있으랴

큰 강의 시작과 끝은 어차피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물길을 항상 맑게 고집하는 사람과
친하고 싶다
내 혼이 잠잘 때 그대가 나를
지켜보아 주고
그대를 생각할 때면 언제나
싱싱한 강물이 보이는
시원하고 고운 사람과 친하고 싶다



CLC in USA 소식

- CLC - USA 총회 준비 현황: 7월 25일 - 28일, CLEVELAND, OH
CLC - USA 웹사이트(clc-usa.com/registration)에 가셔서 2024 총회 섹션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으며,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비는 방 선택에 따라 다양하며, 390불~410불 사이입니다. 100불 디파짓이 있으며 환불이 안됩니다. 등록 마감일은 6월 21일까지입니다. 총회 참가자들은 가능한 빨리 등록하셔야 원하시는 방 선택이 가능합니다. 또 스칼라 쉽으로 재정적인 도움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CLC in USA 차기 의장 및 재무 선출
CONSTANT CONTACT으로 보내진 아래 사이트에 가셔서 후보 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
- 세계 CLC의 날 (3월 23일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
세계 CLC 주최 미사: 줌으로 오전 10시(동부시간)
CLC - USA 주최 미사: 줌으로 오후 7시 30분 (동부시간) - Midwest 지역, 시카고 Polish, 시카고 KCLC에서 주최합니다.
- CLC 핸드북 : 현재 NCC에서 CLC Handbook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Standing Order No. 16: 약자 보호를 위한 내규 - 청소년 관련 사도직 봉사자, 공동체 가이드, 피정 동반자 등은 national safety office 에 등록 권유
- 미국 EA: 현재 EA이신 Fr. Dom의 임기가 3월 말이며, 임원진에서 Fr. David Godeski, SJ와 만날 예정입니다.
- 시노드를 위한 지속적인 지지: 진행자가 필요합니다.



NKCLC 소식

- NKCLC 내규 updated & 승인
- 클러스터 공동체 지역을 위한 각 지역의 협조 요망 (가이드 필요함)
- 이재욱 신부님의 봉사자들을 위한 특강 2월 17일, 18일, 주제: 영적 지도
- 전국 양성부에서 현재 19번 피정 동반자를 위한 workshop, 차세대 리더 교육, 진행중
- 피정 동반자 양성 커리큘럼 계획 (2-3년 프로그램으로 원하는 회원이 참여 가능)
- 회계 보고 (현재 잔고 \$15,551.07) 각 지역 재무들의 회비 납부 완납 바람



동중부 소식

- 리치몬드 수련기 시작: 3월부터 수련기 6명
- 교재: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나누기 & 이냐시오 영성이란 무엇인가 (가이드: 김실비아 & H 데레사)
- Newport News 지역의 이냐시오식 기도 익히기 모임 시작 (봉사자: 강혜진 베로니카)
- 4월 북클럽 시작: 17명 참여, 최준열 다미아노 신부님의 '주도권 내려놓기' (봉사자: 김정현 엘리자벳)
- 스페일 피정과 성지순례
- 주제: 이냐시오와 함께 걷기
- 3월 26일 ~ 4월 1일 성주간 침묵 연피정 (살라망카 예수회 피정집)
- 지도사제: 정회강 베드로 SJ,
- 4월 1일 ~ 7일 순례 기간
- 순례 가이드: 윤정준 율리아노



- 2월 17일은 오세일 신부님과 동중부 신년 친교가 있었습니다. 미국을 방문중인 신부님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신부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K-Pop, 젊은 세대들의 아픔, 변화하는 세

상등 많은 부분을 인식하게 하고 간단한 묵상으로 끝낸 감사한 신년 모임이었습니다. 저희를 위해 방문해주신 신부님께 감사드리고, 또 저희 공동체를 방문해주신 신부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 MAR DC Area Cluster Gathering

지난 1월 14일 Falls Church에서 MAR Gathering에 함께하면서 동중부 타공동체 CLCer들과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매우 추운 날씨였지만 25명 정도 모여서 준비해 온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One body에 소속되어 있음에도 서로 교류하기가 녹록치 않음을 인지하고 서로 connect, cooperate and collaborate. 을 위해 만남을 더 자주하고자 하는 희망을 나누었습니다.

• 3월 2일에 의식 성찰과 식별을 주제로 한 동중부 2024년 봄

• 새 임원과 가이드

- 총무: H 데레사, 재무: 오종선 로사리아, 내무: 이정렬 마리아
- 양성팀: 박이선 유스티나(코디), 김정현 엘리자벳, 심정녀 안젤라, H 데레사, 이정렬 마리아, 임문자 비비안나
- 가이드팀: 용복순 데레사(코디) 씨앗, 게파팀 / 박이선 유스티나: 빛 / H 데레사: 평화, 에파타 / 임윤호 사도요한: 실로암, 헤세드 / 김영옥 실비아: 포도원, 겨자씨



영적 동반의 출발점은 사랑이다... 동중부에서 가이드 봉사자를 초대합니다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 함께 공부하며 공동체 팀가이드 혹은 영적 동반 가이드로 봉사하실 회원을 초대합니다. 자격: 유기서약 받으신 회원으로 주어진 교재를 읽고 공부하며 한달에 한번씩 함께 모여 공부하실 수 있는 분으로 팀장님께서 의장이나 양성코디님께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Guide & Formation Team



피정 강의를 있었습니다. 전국 회원에게 오픈된 줌피정에 100여명의 회원들(동중부 & 타지역) 참가해서 신부님과 함께 의식 성찰 & 특별성찰 실습을 하고 신부님의 강의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3년도 하반기 클러스터 모임의 열매

베네딕도 16세 교황님의 평화의 날 담화문

<빛팀 & 나무다리>

- 자유 의지, 탈렌트, 양심,
- 친교와 나눔
- 자유 평화 권능 사랑 이라는 단어가 살아계신 하느님 현주소
- 평화의 일꾼으로 이끄심
- 선한 마음과 평화를 추구하라
-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느님을 마주하여야 함

<겨자씨 & 에파타>

- 살아 있고 살아가고 있는 자체가 나에게 은총이다.
-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생긴 한 해였다.
- 묵상 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은총이었다
- 많이 힘들었던 한해를 묵주 기도로 극복했던 한해 그리고 기도 응답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에 있었고 그것은 은총이었다.
- 소녀같은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은총을 주셔서 감사하다.
-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시간들이 은총 그 자체였고 내 옆에 하느님 계셔 주셨고 그것은 은총의 시간이었다.
- 가까이 있는 이웃들과의 관계부터 개선할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 주신 것들이 은총이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영성적으로 좀 성장했으면 하는 나의 바람이 있었고 그것은 은총의 시간들이었다.
- 바쁜 시간들 속에서도 주님을 차분하게 바라볼 수 있는 습관들이 자리 잡혔고 그것은 은총의 시간이었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헤세드 & 평화>

- 세계 평화에 대한 깊은 통찰과 새로운 인식, 갈망
-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마음과 사랑 실천
- 평화는 하느님의 선물이며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고, 희망적으로 공동선을 위하여 함께 추구해 나아갈 우리의 사도직
- 교회의 가르침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게 됨

- 평화를 위한 실천적인 교육의 중요성 깨달음
- 도전과 암담함, 무력감에서 희망으로 움직여지는 마음
- 평화를 위협하는 사회적, 경제적 종교적인 부분들에 특 징들을 이해함

평가와 Appreciation

- 나눔 후 모호함에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마음으로 바뀜
- 생명존중과 평화수호를 위한 공동 사도직 분야
- 교회 가르침에 따르는 사회정의 분야의 워크샵 필요성
- 회원으로서 각자의 가야할 방향에 깊게 성찰하며 나누는 시간

<포도원 & 씨파스>

- 참평화의 원천이신 하느님
- 평화에 대한 갈망을 일깨워 주시는 하느님
- 식별의 삶
- 평화의 광범위함
- 예수님께서 오라는 초대
- 참행복에 이르는 평화를 주심
- 각자의 삶 안에서 참된 평화를 일깨워 주시는 주님

<씨앗 & 실로암>

- 평화와 사랑 - 진정한 평화
- 예수님께서 주신 참 평화를 살아가려는 마음
- 예수님을 바라보며 성숙해가는 삶
- 나만의 평화가 아닌 함께하는 평화
- 예수님께서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마태오 14,13-21

“제자들이 “저희는 여기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17)

스포츠 경기 방식에 리그와 토너먼트가 있습니다. 리그(league)는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팀이 한 차례씩 경기하여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게임 전까지 순위는 언제나 유동적입니다. 토너먼트(Tournament)는 추첨에 의해 확정된 대진표에 따라 경기가 치러지고 한 경기만 놓치더라도 탈락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은 스포츠로 말하자면 “리그”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팀이 완전하게 갖추어지지 않았더라도 중간에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모두에게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고 끝까지 다양한 변화의 가능성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고 시작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그 필요한 것을 내가 직접 마련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 구하는 경향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처음에 겹을 집어 먹을 만큼 커다란 과업앞에서 서있는 제자들에게 작은 것에서 시작되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빵 다섯개와 물고기 두 마리의 이야기에서 일러주십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합당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느님의 일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다. 제자들은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것인가에 걱정이 앞섰지만 예수는 배고픈 사람에 대한 연민과 사랑 그리고 하느님과 제자들에 대한 신뢰를 앞세웁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늘 나라의 시작은 항상 작고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 주변에서 너무 쉽게 만날 수 있는 부족함이 많은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하늘 나라운동을 시작했고 지금도 그분의 손길이 살아있지만 부족하고 죄많은 주님의 공동체가 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나시오 로올라 성인의 편지나 문헌을 보면 예수회를 ‘가장 미소한 예수회’ (the least Society) 이라고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이는 단순한 겸손의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느님의 섭리는 아무리 작은 일안에서도 활동하실 것이라는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신뢰의 외적인 표상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아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느님만이 일을 마무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을 끝내시는 분도 비록 우리가 완성하지 못하고 끝내더라도 그분이 마무리 투수이십니다.

우리는 많은 일을 계획합니다. 완전한 준비를 갖추려는 태도는 하느님의 우리의 삶으로의 침투를 막는 방부제입니다. 준

비를 잘 하는 것이 결과의 얼굴을 바꾸는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필요조건일 뿐이지 충분조건은 아닙니다. 하느님 섭리에 대한 신뢰로 일을 시작하는 것이고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연민이 결과의 얼굴을 결정할 수 있다는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 1,35-42

그때에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눈여겨보며 말하였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35-37)

독일의 철학자이자 사회학자인 막스 베버는 정치인에게 중요한 세가지를 말합니다: 열정, 책임, 균형감각.

그는 열정을 아무 것도 생산하지 못하는 ‘비창조적 흥분상태’와 구분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런 태도는 ‘지적으로 흥미로운 것에 대한 낭만주의’로서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하며 객관적인 책임의식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지향이나 열정이 객관적인 책임으로 귀결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열정은 공공의 이익을 향한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열정이라야 하며, 더 나아가 이런 책임의식이 우리의 행동을 주도하도록 만드는 열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균형감각은 필수적인 정치인의 심리적 자질입니다. 균

형감각이란 내적 집중과 평정 속에서 현실을 관조할 수 있는 능력, 즉 사물과 사람에 대해 거리를 둘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리감의 상실’ 그것은 그 자체로서도 모든 정치인의 가장 큰 죄과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가지 요인이 우리 신앙인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복음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내적인 태도는 무엇이이었을까요? 열정일까요 아니면 비창조적 흥분상태였을까요?

요한은 혼자 그 만남을 사유화하지 않고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하는 행위를 합니다. 궁극적으로 그들의 삶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열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매일이 영적인 전쟁일 수 있어야 합니다. 내면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뜨거운 마음이 과연 열정인지 아무 것도 만들지 못하는 흥분상태인지 구분하는 전쟁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크다고 할 때 무슨 기준으로 그 사람이 크다고 하는가? 몇가지 쉽게 떠오르는 기준들이 있다: 덩치가 크다, 높은 지위를 가졌다, 됴됨이가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 큰일을 해내거나 위대한 사람.

하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왜 세례자 요한이 크다고 하시는가? 몇가지 세례자 요

한의 삶의 흔적을 복음에서 되새김해보면 몇가지 가능한 답이 보인다.

1. 첫째로 세례자 요한은 두려움이 없이 질문 하는 사람이었다: “루카 7,19. “오실 분이 선생님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미 알고 있다고 이미 도달했다고 만족해하거나 이미 만들어진 답을 앵무새처럼 반복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큰 사람이라는 생각이다. 질문을 끊임없이 하는 사람이다.

질문이라는 행위의 핵심은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함보다는 아는 것에서 비롯되는, 더 새롭고 깊은 통찰로의 진입로를 찾아 내기 위함이다. 즉, 끊임없는 질문이 개인의 사고와 통찰의 깊이를 깊게 한다. 우리의 결과중심의 사고방식은 ‘문제의 해결능력’보다 ‘문제의 발견능력’의 가치를 무시해오지 않았는가? 좋은 질문속에서 이미 답이 있다. 평생 질문을 하는 삶을 살고 싶다.

2. 세상안에서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를 아는 사람: 요한 3,28: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에 앞서 파견된 사람일 따름이다.’ 마르코 1,7: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 드릴 자격조차 없다.” 어려서 부터 처신(處身)을 잘하라는 부모님의 말씀은 언제나 해당되는 진리의 말씀이다.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를 아는 사람은 남이 있어야 할 자리에 서지 않는다. 오히려 남을 위한 공간을 만들수 있는 사람들이다. 신앙의 위치감

각은 언제나 세례자 요한에게서 배우는 가르침이다.

3. 예수를 기억하게 하는 사람: 요한 3,30: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마닐라 대주교였던 한 추기경이 은퇴하였는데 지역 신문이 인터뷰를 했다. “추기경님, 은퇴를 하셨는데 누구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저를 어떻게 기억이요? ... 아닙니다. 저는 온전히 잊혀지고 예수님만 기억되면 좋겠습니다”.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보다 더 멋진 삶은 없을 것이다.

결론: 신앙은 우리를 제 2의 세례자 요한의 삶으로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세례자 요한 처럼 큰 사람은 결코 하늘나라에 폭행을 (12) 가할 수 없습니다. 큰 사람은 규모의 의미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과 깊이의 이슈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한해가 저물어갑니다. 대림절 남은 시간 또 새로 오는 한해 제 2의 세례자 요한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책소개]
프란치스코 교황의 ‘마음이 일러 주는 하느님’
웁긴이 정강엽